

I. 문학의 본질

1. 객관적 상관물	10
2. 비유(比喩) · 유추(類推)	18
3. 상징(象徵)	23
4. 묘사(描寫)	27
5. 대화와 독백	30
6. 어조(語調, TONE)	38
7. 역설(逆說)	42
8. 반어(反語)	46
9. 관조(觀照)	56
10. 성찰(省察)과 반성(反省)	59
11. 미의식	62
12. 풍자와 해학	66
13. 냉소(冷笑)	69
14. 거리	70
15. 문학의 소통구조	74

II. 운문 문학편

16. 시상(詩想)	76
17. 선경후정(先景後情)	84
18. 감정(제시 · 절제)	86
19. 영탄(詠嘆)	88
20. 설의(設疑)	91
21. 문답법	93
22. 운율	94
23. 여음 · 후렴	99
24. 연쇄(連鎖)	100
25. 대구(對句)	101
26. 주관적 변용	102
27. 행간걸침(림)	104
28. 시적하용	105

Ⅲ. 산문 문학편

29. 시점	108
30. 소설의 구성	118
31. 복선(伏線)	132
32. 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의 개입	136
33. 판소리	140
34. 의식의 흐름	141
35. 서사극	143
36. 고전 소설에서의 대화	147

Ⅳ. 세부 출제 항목

37. 감각적(感覺的)	152
38. 사실적(寫實的) · 객관적(客觀的)	155
39. 토속적 · 향토적 · 목가적	158
40. 현학적(銜學的)	160
41. 입체(적 · 감)	162
42. 점층	163
43. 환기 · 연상	166
44. 언어유희(言語遊戲)	168
45. 무상(無常)	170
46. 속도감	171
47. 요약 · 압축 제시	172
48. 우의(寓意) · 우화(寓話) · 가전(假傳)	174
49. 긴장 · 긴박	178
50. 도치(倒置)	182
51. 중의적(重義的)	184
52. 서사적(敘事的) · 서정적(抒情的)	185
53. 극적(劇的)	186
54. 음성상징어	187
55. 대비 · 대응 · 병치 등 총정리	189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총 55 종류의 문학 개념어를 통해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번에 빠짐없이 약속된 용어들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한 다음 학생들이, 실전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개념어에 대한 빠짐없는 체계적인 구성

개념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문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학의 본질 항목. 그리고 둘째·셋째로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 마지막으로 세세하지만 시험장에서 선지의 적절성 판단에 필수적인 세부 출제 항목까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I. 문학의 본질		III. 산문 문학면	
1. 객관적 상관물	10	28. 시정	108
2. 비유(比喩) · 유추(類推)	18	30. 소설의 구성	118
3. 상징(象徵)	23	31. 독선(獨善)	132
4. 묘사(描寫)	27	32. 편집자의 논평 · 서술자의 개입	136
5. 대화의 특색	30	33. 판소리	140
6. 아조(阿致, TONE)	38	34. 일시의 흐름	141
7. 역설(逆說)	42	35. 서사극	143
8. 반어(反語)	46	36. 고전 소설에서의 대화	147
9. 은유(隱喻)	56		
10. 상징(象徵)과 반영(反映)	59	IV. 세부 출제 항목	
11. 미시시	62	37. 감각적(感性的)	152
12. 풍자와 해학	66	38. 사실적(寫實的) · 객관적(客觀的)	155
13. 냉소(冷嘲)	69	39. 토속적 · 향토적 · 목가적	158
14. 거리	70	40. 현학적(現學的)	160
15. 문학의 소통구조	74	41. 입체적 · 경	162
		42. 정중	163
		43. 완기 · 연상	166
		44. 언어유희(言語遊樂)	168
		45. 무상(無常)	170
		46. 속도감	171
		47. 도악 · 압축 제시	172
		48. 우회(迂回) · 우회(迂回) · 가련(假面)	174
		49. 긴장 · 긴장	178
		50. 도제(道制)	182
		51. 중의적(重義的)	184
		52. 서사적(敘事的) · 서정적(抒情的)	185
		53. 극적(劇的)	186
		54. 융상상징어	187
		55. 대비 · 대용 · 병치 등 총정리	189
II. 운문 문학면			
16. 시성(詩聲)	76		
17. 선경후경(先聲後景)	84		
18. 감정제시 · 절제	86		
19. 영타(詠歌)	88		
20. 설의(說理)	91		
21. 문답법	93		
22. 운율	94		
23. 어음 · 후렴	99		
24. 연설(演說)	100		
25. 대가(對歌)	101		
26. 주관적 변용	102		
27. 절구(絶句)	104		
28. 시적(詩的)	105		

02 비유(比喩) · 유추(類推)

비유(比喩)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 Advice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원관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과 유사한 사물(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기법. 비유가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두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직유, 은유, 의인, 대용, 중유, 환유 등이 있다.



예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야. 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2 개념어 풀이와 ADVICE

개념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해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뜻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ADVICE를 덧붙였다.

3 작품으로 이해하기

작품 속에서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그 의미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경 지식과 기본기 강화를 위해 예시는 교과서 필수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A 객관적 상관물

“넓은 하늘에서 좌우의 경사가 완연하여 있는 모든 대상은 지극히 상응되어있고 할 수 있을, 주로 세로로 주어지며 좌우의 경사를 암시하거나 환기·고조시키는 경우.”

1) 시정적 차이의 차이와 **비유적** 형태

“장미로 막 여왕가에 작은 제자나루 한 그루가 완연의 행방을 전하고 세 있었다.”
- 이철은, 「눈길」, 마

“‘나’의 무절하고 어색한 자질을 알고 견디려 하는 불완전한 심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려는 ‘나’의 자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나’의 자질을 보려는 ‘나’의 심리를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지상(地上)에 배 뿌리고 양친(兩親)에 내 커먼세 사공(司公)은 어찌 가지도 빈 배만 제정난고 **석양(夕陽)에 막 일흔** 갈매기나 오작가라 하노래
- 조현

“‘나, 네, 배, 막 일흔 갈매기’ 등은 지상(地上)의 회상(回想)을 나타내는 소재들이다.”

보습(補習)을 붙여는 곳에 내치고 **원(園)에** 장미(玫瑰) 속에 스며들 제 눈사물 못내 이겨 땅을 가나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자네.
- 최남선, 「봄이」

“작은 병풍에 거대이 선 채로 불타고 일어나는 살구꽃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에서, 회상을 통해서 한층더 한층 더 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층더는 애상(哀傷)하는 정(情)이 느껴진다.”

산세도 남자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 가온 오지 않는다.

인제 갈던 곳 홀로 일흔

가을 산의 어스름

- 백두진, 「도봉」, 마

“가을을 참고할 때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은 ‘가을 산’임을 알 수 있고, 일출된 부분들은 가을 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일출된 부분들은 가을 산의 역(역)과 고(高)함을 드러내 화자의 회상은 차이를 드러내고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高)함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2) 시정적 차이의 차이와 **비유적** 형태

정말 나는 제 복되기는 / 양수 다정히 노니네 외로워. 이 내 몸은 / 나와 함께 돌아가리
- 유림, 「황조기」

“‘복되기는’는 넓고 아늑하고 회상을 불러와 화자의 회상을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

분에 땀난 만리(萬里)에 나그네는 / 남이 고기든 어느 해에 도라가리노 / 갈상에 그려기 / 노리 정히 작으로 나리기에 애를 고노라.
- 귀한, 「두사선」, 마

“고(高)한 물이 높아 흐르는 것과 낙(落)이 있어 떨어지는 화자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다. (장동) 1월, 노(落) 1월, 노(落) 1월.”

정월(正月) 나그네는 어느 노리 낙지네. 누워 가운데 나그네 몸이 조조로 넘네.
- 작자 미상, 「동동」, 마

“장동(長動) 고(高)상(上)에 어느 노리 낙지네. 사정(事情)을 여하히나 도(道)로(道)가 일(一)하리다 **도화(道化)**는 사정 일체 소(小)순(順)대(代)하리다 소(小)순(順)대(代)하리다.”
- 작자 미상, 「만년(萬年)」, 마

“시정(時情)이 불타고 있는 ‘노리’는 회상(回想)으로 시를 한층더 화자의 마음을 한층더 화자의 회상을 부(附)하고 있다.”

개념어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적용되었던 부분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했던 문학 문제를 전부 조사하여서 실제 문제에서 개념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밝혔다. 평가원의 출제 지침과 그에 맞춘 학생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illegible][illegible]

5 자습이 가능한 풍부한 해설

이 교재는 문학기념어를 기준으로 내용이 조직되고 구성되었다. 작품과 문항에서도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어와 연관된 POINT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는 풍부한 해설을 별도로 덧붙였다. 해설을 통해 학생들이 자습으로도 기본 작품과 기출 문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12

풍자와 해학

1. 풍자⁰³ (諷刺)

「1」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바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2」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바웃으면서 씀.

2. 해학⁰⁴ (諧謔)

익살스럽고도 풍유가 있는 말이나 행동

질문

point

▶ Advice 풍자와 해학의 구별

풍자	해학
웃음을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	연민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웃음

6 연관 개념 사이의 연관성 정리

모든 개념과 지식은 홀로 존재하기 보다는 연관 개념과 지식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따라서 비슷한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유사한 용어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의 관계를 비교 설명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온갖 이의제기와 오묘심비에 대비해야 하는 평가 원으로서도 '대화적'과는 애매한 용어보다 논란에서 자유로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전 point

★★★★★

정리해보자. 시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는다면"

1. 독백은 된다.
2. '말을 건네는 방식'에는 해당하지만,
3. '대화적'나 '대화적 구성'에 해당하지는 않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애매한 '대화적'나 '대화적 구성'라는 용어의 개념 파악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 시험에서는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출제될 것이니 불안해 하지 말기 바란다.

7 실전 point

지금까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지점들, 즉 국어를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지점을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가를 정리하였다. 또 기출문제가 보여 주는 평가원의 출제 지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였다. 즉, 학생들이 개념어를 실전적으로 최적화하여 시험장에서 즉각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김상훈의 문학개념어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다.

IV. 硯部 출제 항목

IV

세부 출제 항목

37

감각적(感覺的)

감각적(感覺的)

: 감각을 자극하는, 또는 그런 것.

▶ Advice

주로 시와 관련되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이미지화)하고 있다.'는 거의 정형화되어 출제되는 선지이다. '감각적'이란 인간의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의 신체 오감과 공감각·복합 감각을 포함한다.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로 표현해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감각적 표현(이미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에 대해 '감각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대체로 맞는 문장일 확률이 크다.

'감각적인 표현'의 판단 기준은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감각의 표현(이미지)들이 작품 속에 얼마나 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시각적)
물바가지에 떠담던 접동새소리 (청각적)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짓는 냄새 나면(후각적)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공감각적)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 도중환, 「어떤 마을」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 먼—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 구름은 / 보라빛 색지 위에 /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 부을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 김광균, 「땃상」

기출로 이해하기 1 12년 6월 모평 21번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 김동명, 「파초」

190.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2 19년 6월 모평 30번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191.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3 07년 대수능 56번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삼(揅)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냐.

— 양주동, 「질화로」

* 목불식정 :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의의를 삼한죽 : 의문을 제기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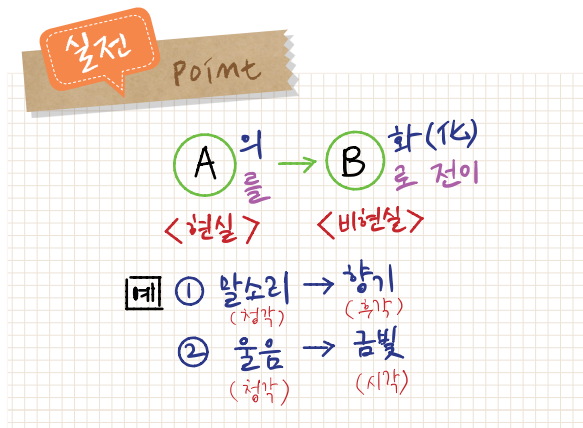
192. ⑤ 윗글의 ‘질화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O, X]

참고 1 공감각 VS 복합감각

1. 공감각 [共感覺, Synesthesia, Synesthésie]이란?

: 공감각은 동시감각의 속성을 지니며, 어떤 감각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간의 전이 현상을 말한다. 즉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유발하는 것이다. ‘**감각전이**(感覺轉移, sense transference)’, ‘**감각유추**(感覺類推)’라고도 한다. 본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감각인상(感覺印象)의 종류와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 자극은 1대 1로 대응한다. 하지만 때로는 **감각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감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감각이라 한다.



- 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 청각의 후각화
- ② 금빛 게으른 울음
→ 청각의 시각화
- ③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시각의 청각화

기출로 이해하기 1 06년 6월 모평 16번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193.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O, X]

기출로 이해하기 2 15년 6월 모평 B형 32번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김광균, 「와사동」

194. ㉠ ㉡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3 19년 6월 모평 28번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배한봉, 「우포늪 왓새」

195. ㉠ 윗글은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4 19년 수능 35번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196. ㉠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O, X]

2. 복합감각이란?

: 둘 이상의 종류의 감각을 복합적으로 엮어 표현하는 수사법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 박목월, 「나그네」中

→ 술익는 마을: 후각적 심상

+

⇒ 후각과 시각의 복합감각

타는 저녁놀: 시각적 심상

기출로 이해하기 5 15년 대수능 A형 32번

㉠ 물 소리에 / 이가 시리다.

— 정지용, 「조찬」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 이태준, 「파초」

197.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O, X]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O, X]

참고 2 색채어

색채어(色彩語): 빛깔을 나타내는 말.

기출로 이해하기 1 08년 6월 모평 17번

하이얀 여울턱에 낚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 김소월, 「나의 집」

198.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2 16년 6월 모평 A-B 공통 41번

(가)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 고은, 「성묘」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
뒹뒹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199. ④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3 18년 6월 모평 28번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
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 조지훈, 「고풍의상」

* 호장 : 화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헝겊으로 꾸민 것.

200.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4 13년 6월 모평 13번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201.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5 13년 대수능 32번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202.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O, X]

38

사실적 · 객관적

A 사실적(寫實的)

;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는, 또는 그런 것.

寫

1. 베끼다
2. 본뜨다
3. 묘사하다(描寫--),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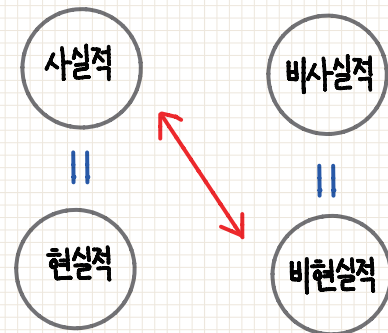
實

1. 열매
2. 씨, 종자
3. 내용(內容)
4. 바탕, 본질(本質)

실전

point

★ 판단 기준은 반대말!!



기출로 이해하기 1 09년 대수능 23번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A]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중략)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김승옥, 「역사」

203.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기출로 이해하기 2 13년 9월 모평 30번

[D]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 김기택, 「멸치」

204.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O, X]

기출로 이해하기 3 17년 9월 모평 24번

작품 없이 문제만으로도 판단 가능합니다.

20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

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 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뚜왕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기출로 이해하기 4 19년 6월 모평 30번

- ㄱ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E]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206. ⑤ [E] :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O, X]

B 객관적(客觀的)

객관적(客觀的)

;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



★ ‘객관적’의 판단 기준.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평가원이 공식 출제한 문학 문제에서 적절했던 적은 지금까지 단 3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문학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김유정, 「동백꽃」

(〈보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 쓴 문제, 우리 교재 72쪽 수록)

59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14학년도 9월 모의 B형 임춘, 「국순전」

(〈보기〉로 ‘가전체(假傳體)’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되었음. 우리 교재 176쪽 수록)

36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최두석, 「낮은 집」

44 ④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